

# ‘오고 싶고 살고 싶은’ 농촌을 꿈꾸다

**농**촌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군산시가 다양한 귀농·귀촌 정책을 실시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서해 중부권에 위치한 군산은 서해를 중심으로 따뜻이 감싸안고 터를 잡아 기름진 들과 풍부한 바다 고즈넉한 산들이 어우러져 있다.

또한 역사 문화, 관광자원이 풍부하며 도·농 복합도시로 시골의 따뜻한 정취와 도시의 편리함까지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이러한 군산에 이끌려 귀농·귀촌하게 된 인구는 최근 5년간 2,920명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많은 이들의 군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청정한 농촌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있다.

특히 시는 농촌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해 지역 밀착형 체험과 정보를 제공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귀농·귀촌인 목공 실용교육



귀농·귀촌 기초반 교육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귀농·귀촌 박람회



농산물 플리마켓

### ▲청년 귀농·귀촌인 육성

최근 군산시 귀농·귀촌 인구 분석결과 50대 이하가 58%를 차지할 정도로 젊은 세대의 귀농·귀촌 비율이 높다. 이는 고령화되는 농업 인력의 세대교체로 활력있는 희망 농촌 만들기 에 역할을 두고 젊은 귀농·귀촌인 유치와 정착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시책사업으로 4,500억을 투자하는 지역상생형 일자리모델 발굴 사업을 추진해 1,9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젊은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청년 농업인 경영실습 스마트팜 조성, 청년농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지원, 청년 창업농 영농기반 지원, 청년농 정책자금지원 등 청년 귀농·귀촌인 들을 위한 다양한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제공

시는 귀농·귀촌을 원하는 도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 등 지난 2020년부터 약 60억의 사업비를 매년 확보해, 주택 및 농지 정보 등 귀농·귀촌 정보DB 구축과 귀농·귀촌인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귀농·귀촌 정보 전달 홈페이지 개선을 통해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고 동시에 문의사항에 대해 전문상담사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원스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맞춤

경영실습 스마트팜 조성 등 영농정착 지원 귀농인들 대상 10월까지 이론·실습 교육 농지·주택정보 구축 등 인센티브 '다채' 지역민과 함께하는 농촌생활 실용교육 등 텃새 없는 귀농·귀촌 정착 분위기 조성

형 귀농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 ▲귀농도 아는만큼 성공한다... 귀농·귀촌 기초교육부터 탄탄히

귀농인들이 농촌에 성공적으로 정착해 농업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업을 생업으로 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영농실습과 귀농정착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귀농·귀촌 기초반과 전문반 교육 과정을 매년 6월부터 10월까지 예비귀농인과 귀농인 100명을 대상으로 작물재배, 농촌생활 적응, 유통 마케팅 교육 등 이론교육과 농기계작동법, 농산물 가공 등 실습 교육을 수준별 맞춤 학습으로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또한 농사일을 해보지 않은 예비귀농인에게

맞춤형 현장실습 지원을 위해 귀농인과 선도 농가 간의 멘토-멘티 관계를 연결해 실질적인 현장실습을 통한 영농 정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매년 10팀 20명)하고 있다.

선도농가의 농장에서 실습하면서 영농기술을 직접 배우는 선도 농가 현장 실습교육은 선도 농가에 월 40만원, 귀농 실습생에게 월 8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 ▲귀농성공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및 안정적 정착기반 조성

농촌에 이주해 와서 정착하기까지 귀농·귀촌 실행단계 초기에 대부분 예비귀농인들은 거주할 주택 마련에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귀농·귀촌 박람회 최우수상 수상

시는 귀농·귀촌인을 위한 농지 및 주택정보 구축사업과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7개소, 귀농인 창업 및 주택 자금지원, 농가주택 수리비 주택 및 농지 임차료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사업을 지원한다.

### ▲지역민과 화합 프로그램으로 텃새 없는 귀농·귀촌 정착 분위기 조성

꿈과 희망을 가지고 농촌에 들어온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인 정착을 못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역귀농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귀농정착 실패 원인으로는 준비부족(48%) 자금부족(13%), 소득원확보실패(11%), 주민과의 불화(9%)로 나타났는데, 정확한 정보기술습득과 현지인과의 융화가 성공적인 귀농의 관건이다.

시는 귀농·귀촌인의 현지 적응과 지역민과의 화합을 돕기 위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농촌생활 실용교육, 동아리 활동비 지원, 재능기부 활동비 지원, 선배 귀농인 멘토컨설팅 지원 등으로 텃새 없는 귀농·귀촌 정착 분위기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

또한 시는 읍면동별 마을 이장 귀농·귀촌 이해교육, 마을 환영회 등 귀농·귀촌 교감 프로그램 지원으로 기존 주민과 귀농·귀촌인과의 갈등 관계를 해소해 나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민 유치부터 안정적인 정착까지 귀농·귀촌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귀농·귀촌 친화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모두가 함께 상생하는 귀농·귀촌 정착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근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